2022년 제3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2. 6. 14.(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공공미술위원장 등 7명
◆ 주요 내용
① (심의) 서울시 장기기증인 기념(추모)공간 조성사업(보건의료정책과)
② (심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광화문광장추진단)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위원회가 성원 되었으므로 제3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서울시 장기기증인 기념(추모)공간 조성사업(심의)〉

○○○ : 대상지가 여러 번 바뀌었고, 문화시설과 아이들과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서울시 시립병원 등이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공간과 교육적 공간을 염두에 두고 보라매공원에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음.
서울시 뇌사 장기기증인과 가족을 위한 기념공간 조성은 기증인의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하는 기념조형물임. 작품 '나누고 더하는 사랑'은 기증인과 기증인 가족의 나눔이라는 사랑이, 수여자와 그 가족에게 생명 연장의 사랑으로 더해지는 생명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음.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근원 색감과 물의 이미지, 그리고 생명체가 움직이고 확장되는 파동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였음. 위로 쌓아 올린 3층의 유기적 덩어리들은, 기증인과 가족 그리고 이식인을 각각 의미함. 둥글게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형태로 제작된 바닥 패턴은 나눔의 정신이 실천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작됨. 우측 키오스크에는 작품설명과 생명나눔의 메시지, 연도별 서울시 뇌사 장기기증인의 명단을 시각화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공감하고 공유할 예정임. 작품 크기는 최대 높이 3m 정도이고, 구의 형태가 아니라 유기적인 형태로서 약간 변형이 이루어질 예정임. 재료는 알루미늄 캐스팅이고 우레탄 도장을 하여 아주 붉지 않고 톤 다운된

색감이 될 예정임. 시공은 터파기 후 잡석 다짐, 단배근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판석 마감을 함. 중간에 전기 작업이 들어가고 키오스크 안에 분전함, 타이머 등을 설치함. 조명은 누전이나 감전 위험이 없도록 IP 등급 방수등급을 채용할 예정임. 키오스크는 삼성 46인치 패널로 야외에서 밝게 보일 수 있는 패널을 적용함. 작품 설명과 기증인명단, 도너 패밀리 예우사업이나 장기기증에 관련된 안내문 등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임.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과장이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성모병원 기념조형물 작품이 있음. 작품 유지관리는 협회에서 할 예정임.
총예산은 2억 원으로 작품 예산이 1.7억, 키오스크 예산이 3,000만 원임.

○○○ :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유가족 두 분이 오셔서 인사드리고자 함. 한 분은 2000년에, 다른 한 분은 2011년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내신 아버님과 어머님이심.

○○○ : 저희는 도너패밀리라는 유가족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돌보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저희로서는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어서 저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음.

○○○ : 설치장소를 보니 보라매공원 내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에 가깝게 붙어있음. 기념비를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혹은 기증자를 더 늘리는 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라매병원 근처가 낫지 않은지?

○○○ : 장애인복지관과는 장소가 구분돼 있어, 장애인분들의 동선과 거의 겹치지 않음. 병원 부지도 당초 고려대상이었는데, 유가족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뇌사는 급작스럽게 쓰러진 상황이고, 병원이 마지막 이별을 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께는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병원 안에 공간을 조성하는 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으로 정하게 되었음.

○○○ : 3m짜리 구조물을 콘크리트 기초에 심을 박아 앙카로 고정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알루미늄에 우레탄 코팅을 하는데, 알루미늄이 외부에 노출되면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우레탄이 벗겨지게 됨. 무상보수 기간이 2년인데, 유지보수 기간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 : 저희가 구조검토를 진행하고, 시공 경험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림.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2년인데, 우레탄 코팅 같은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의도적인 파손에 대한 보수는 장기기증본부와 협의 하에 기금 마련 등 논의가 필요함.

○○○ : 그러면 몇 년까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 : 일반적으로 3~5년으로 보고 있고, 담당 작가님과 추후 협의해보겠음.

○○○ : 키오스크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관련 예산 책정은 되어있는지? 키오스크는 스틸로 구성되어있는데, 외부에 계속 있으면 녹 등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음.

○○○ : 저희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유지보수와 키오스크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 책정도 되어있음. 남산 기억의 터(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공간)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3년이 넘어도 녹 등이 전혀 생기지 않아, 해당 업체 제품으로 설치할 예정임.

○○○ : 기단부에 포천석을 까는 것과 컬러 선정, 생명체의 유기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 등은 굉장히 좋으나 기단을 약간 더 높이면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음. 조명의 개수와 거리도 다시 한번 검토 바람.

○○○ : 키오스크 구조도를 보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만드신 것 같은데. 기왕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면, 조형물 영상 촬영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음.

○○○ :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라 9를 형상화한 디자인 등도 시도해봤는데, 기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라 다양하게 고려를 하다 보니, 의미적이거나 작가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부분들은 배제를 한 과정들이 많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단을 높이는 디자인도 있었고, 패턴 색깔을 여러개 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고민도 했으나,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등으로 현재의 디자인이 나왔음.

○○○ : 키오스크와 작품의 거리, 애니메이션 등 아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함.

○○○ : 공공미술이라기보다는 추모 기념사업 공간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이 목적성이 참여예술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잔디에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관리 문제도 있고 터치를 하는 용도나 조형물은 적당히 떨어져서 보는 게 더 좋은 면 등을 생각하면 키오스크를 차라리 앞쪽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 2년 정도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3년 유지보수를 했으면 함.

○○○ : 그러면 유지보수 3년 기간을 권고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심의)〉

○○○ : 해치마당은 광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하철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이고, 미디어월은 약 113㎡의 크기를 가진 LED 디스플레이임.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은 자유롭게 거닐며 소통하는 마당의 역동성과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해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의 지속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써, 각 콘텐츠에 따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옴니버스식 기법으로 구성했음.
문화재 복원 및 활용으로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을 강화시키고, 주변 연계 활성화를 고려하여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그려나가는 화첩으로 제작하였음.
광화화첩은 천·지·인을 모티브로 서울의 역사,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이 직접 그리는 초대형 뉴미디어아트 콘텐츠임.
천(天)은 백악춘효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의 600년 역사가 담긴 두루마리에서 펼쳐지는 역사 속 광화의 모습부터, 뉴토피아 광화의 모습까지 표현한 신광화도와 서울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들의 사유의 연결을 표현한 몽중몽으로 구성되어있음. 지(地)는 서울의 숲을 모티브로 하여, 서울의 자연을 환상적으로 재해석한 서울의 숲, 그리고 해치마당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조경을 초월한 또 다른 광화문의 광장을 표현한 광화 메타 랜드스케이프로 구성되어있음.
인(人)은 큐알 코드를 통해, 아쿠아리움을 배경으로 물고기를 색칠하여 자신만의 물고기가 헤엄치게 할 수 있고, 직접 사진을 찍어 미디어월 폴라로이드 화면에 사진이 전시되는, 두 가지 시민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되어있음. 마지막으로 THE ART 콘텐츠에서는, 희망과 힐링을 주제로 한 유쾌한 이탈-쇠똥구리, 순간에서 영원으로-민들레, 터질듯한 진심-비눗방울, 세 가지 작품이 전시됨.
해치마당 미디어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2시간 운영이 되며, 영상콘텐츠는 총 30분임.

○○○ : 이 안건에 대해 질문 의견 받기 전, 조례상 심의대상은 미술작품설치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고, 미디어아트는 무형의 콘텐츠이고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영상보다는 기획,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자 함. 이점 염두에 두고 질문해주시기 바람.

○○○ : 포맷은 변형할 수 없는지? 미디어보드의 포맷이 기형적인 형태라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이미지도 잘리고 가려짐. 포맷을 조금이라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음.

○○○ : 하드웨어는 길이 69m, 3.5m, 50cm 정도 크기의 영구시설물로 설치될 예정임. 처음 하드웨어를 설치할 무렵에도 기형적으로 생긴 형태가 단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자문을 거치면서 하드웨어 형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음.

○○○ : 오히려 기하학적 패턴 등 추상적인 콘셉트라면 라이트 쇼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시민참여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넣으면 혼선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0분에 영상 총 9개 콘텐츠가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장 개장 때 모니터링을 해서 시간 간격 등을 조정할 계획임. 말씀하신 추상적인 이미지는 천 콘셉트의 몽중몽에서 표현이 됨. 시민참여콘텐츠는 30분 중 10분 정도로, 시민들이 표현한 색채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현되면, 많이 관심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콘텐츠가 다소 설명적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장소에 걸맞은 콘텐츠를 잘 보완해야 할 것 같음. 작가의 작품 결이 이 공간에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음.

○○○ : 저희가 진행하면서 전체의 콘셉트와 운영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서 진행됐고, 각각의 콘텐츠들이 약 70% 정도 제작되고 있음.
각각이 꼭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천은 천대로, 지는 지대로, 인은 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각각의 파트가 변할 때마다 앞에 설명 문구를 삽입해서 시민들의 작품 이해를 도우려고 함.

○○○ : 러닝타임이 30분인데, 보행자들이 보도로 이동하는 공간인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을 만한 작품이 구현되다 보니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함. 시간대별 사람들 이동량이나, 보행자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공연장이 아닌 보도에서 30분을 상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70m를 걸어가면서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함.

○○○ : 저희가 광장을 확장하면서, 시민들이 광장을 찾는 동선이 다각적으로 분산됨. 그래서 이곳을 머물면서 볼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음.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현재까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편중되어있어 주말에는 운영 시간을 평일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임.

○○○ : 미디어는 러닝타임이 굉장히 중요함. 나중에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기보다는 되도록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운영 시간이나 러닝 타임을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 광화문에 미디어 작업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함.

○○○ : 이런 작업에서는 어떤 결의 작가들을 어떻게 섭외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지에 대한 전체 플랜이 중요한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 : 처음 개장할 때는 공공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로 운영하고, 3개월 이후에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서 신진작가 혹은 대학과의 협업 전시콘텐츠를 1년 정도 운영할 계획임. 기존에 있는 영상을 가공해서 쓸 수 없는 플랫폼 형태여서 디스플레이 형태에 맞게 특별히 제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잘린 듯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셨다고 받아들여지는데, 하드웨어의 특징에 맞춰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했음.

○○○ : 추상적이면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영상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나 콘텐츠나 텍스트가 있는 영상은 잘리면 잘못된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음. 비례가 안 좋고 시각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함.

○○○ : 최대한 상징성 있게, 최대한 압축적으로 제작해야 할 것 같음.

○○○ : 기존에 해오던 사각 틀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형화돼있지 않은 이런 스타일은 모험적이고 처음 하는 사례는 맞음. 이번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원근법 등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음.

○○○ : 삼성 코엑스 입구 미디어파사드도 디귿 자 형태로, 작가가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음.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작가의 역량으로 풀어낼 수도 있음.

○○○ : 기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음.

○○○ : 장소성을 고려할 때 다른 미디어아트보다 디자인적 전략이 좀 더 명확해야 하고, 경사로가 있는 데다가 미디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선상 걸어가는 방향에서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을 고려한 콘텐츠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있음. 큐알 코드로 찍고 전송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재미있으나,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동선상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에 관한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음.

○○○ : 정리해보자면, 개별영상보다는 기획·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했는데, 미디어월이 워낙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이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이 큼. 그래서 공간과 낯선 형태에 맞는 디자인전략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 걷거나 머무르는 시간 등을 고려한 영상을 콘텐츠로 해야 한다는 기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음.

○○○ : 공공장소의 미디어파사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함.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 :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향후 운영까지 계속 맡게 되는 건지, 아니면 첫 설치까지만인지?

○○○ : 지금까지는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계속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추진 중임.

○○○ : 설치는 완료되어 8월에 광장을 개장함.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디자인정책과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 상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려고 진행 중이고, 역사박물관의 광화벽화, KT 건물에도 파사드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음.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들과의 협의체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함.

○○○ : 큐레이션이 필요해보임.

○○○ : 심의 기준 2, 3번인 미술작품으로서의 예술적 가치, 품격과 공공공간에 설치되기에 적합한 내용, 형식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다고 봄.

○○○ :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저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음. 설치가 끝나서 부결은 어려운 상황이니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면 전문가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음.

○○○ : 그러면 심의 결과는 콘텐츠제작전문위원회 운영 조건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하겠음.